



◇거리의 만다라 (58×58cm).

# 강보에 싸인 아기의 잠은 미래를 꿈꾸는 인도의 숨결

거리의 물결은 생명의 만다라

부사발역에서 보팔역으로

차량과 사람웃이 빛은 형태·빛깔은 지상의 파노라마  
“짐 옮겨 주겠다” 달려드는 청년의 열기는 삶의 열정

## 인도 그림기행 8

그림·글 이호신

“지구촌 마지막 여행자가 바로 인도지요. 돌고 돌아서 다시 가보고픈 곳이 인도 땅입니다.” 한 인생선배의 말이 떠오를 때 좀 차장을 보면 스님은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인도 여행이건만 삶의 감동은 여전한군요. 세상의 어느 나라를 다녀 봐도 이처럼 생명이 흥만하고 또 변화가 많은 곳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신다.

이제 버스에서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부사발역으로 가는 길. 거리는 온통 못 생명으로 가득한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진다.

사람과 더불어 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소, 말, 개, 돼지, 염소, 양, 닭들이 난장을 치고, 차량은 동물들을 피해가느라 연신 크라삭 소리와 후먼지로 뒤뉘벌이다. 또 건물과 차량, 우마차와 사람웃이 천태만상의 형태와 빛깔로 드러나니 가히 거리의 물결은 지상의 파노라마다. 침대 열차에 올라 목적지인 보팔역까지 7시간을 가야하는 여정에 돌입했는데 영하 5도의 날씨에 수 십 명이 얼어죽었다고 현지 신문이 전한다. 반대로 지금 한국에 돌아와 붓을 든 이 순간(2003. 6. 5)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3주째 12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인도 소식이 우울하게 들려온다.

이처럼 인도의 지리, 역사는 다양성의 문화로 공존한다. 수 백 개의 방언과 열여섯개의 공식언어,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 회교 등이 존재하는 종교의 천국이다. 또한 다양한 피부색의 종족이 모여 살며 풍습도 가지가지인 풍토는 자연 지리와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밤 대륙을 횡단하는 고단함과 지루함은 열차로 동행인 칠순할머니의 인생드라마에서 김동무로 이어간다. 한시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염감을 때어놓고 여생의 소원을 위해 한달간 산사기도를 다녀오겠다고 할아버지를 속였다는 할머니의 거짓말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거시기 이 화백, 내가 흑 길을 잃어버리면 무어라고 남들에게 말해야 할 수 있을 텐가?” “네, 할머니 나마스떼(안녕하세요) 바차-오 바차-오(도와 주세요) 하시지요” 여행사에서 나누어준 쪽지를 훑쳐보고 할머니를 안심시키자 할머니는 그새 눈감고 두 손 모은 채 “나마스떼, 바차-오 바차-오”를 염불하듯 반복하고 또 되뇌이는데 아닌가. 하긴 할머니에게 지금 이 보다 더 간절한 주문은 없을 것이다.

깜깜 밤길속에서 마침내 보팔역에 도착하자 싸늘한 냉기가 엄습하는데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서로 엉켜 이불을 포개며 퐁퐁고 있다. 숲으로 가지 않고 사바세계에 머무는 눈빛만 빛나는 목숨들, 저들은 진정 결연인가, 수행자인가.

한편 마차 주변이 웅성거리 살펴보자 어느 주검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다. 조금 전 뉴스에서 동사(凍死)한 현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밤새 저 냉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성(自性)을 찾고 못발을 찬탄하려는 사람들의 용맹인가. 아니면 현실의 패배자인가. 여행자의 의문은 들끓이 오작하고 인륜(人倫)은 애린(爰憐)의 슬픔으로 잦아든다.

자신 키만큼 쌓은 여행용 가방을 묶은 다음로 감싼 머리에 이고서 휘청거리며 역 제단을 오르는 흰수염의 늙은이. 가방을 먼저차지해 옮겨 주겠다고 밀치며 달려드는 청년의 활기 속에 인도의 삶이 흐른다. 직시해야 할 현실의 뜨거운 풍정이 일어선다.

집을 떠나오기 전 인도에 관한 참고서적, 여행기를 접했는데 다행도 신간인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육순)은

적잖이 충격을 주었다.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순진하지도 대등하지도 않다. 나는 19세기 제국주의자 영국에게 감염된 우리의 ‘인도 보기’를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한다. 이미지는 모름지기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인식의 양태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도는 부정해야 할 ‘동양’이거나 지구촌 아픈 기억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이 구성한 인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담론을 비판 없이 차용하고 복제하여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인도를 우리의 ‘동양’과 타자로 바라보면서 한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대영제국의 공범이 되어 심리적 보상을 얻는 것이다.”

이 무서운 지적은 잘 나가는 베스트 작가와 인도 여행을 단숨에 벼랑으로 몰아 지상으로 번졌고, 나 또한 그녀의 애정 어린 인도 읽기에 공감하며 내심 마음의 준비를 다졌었다. “그렇지, 판의 자료에 의지하지 말고 내 시각으로 살펴봐, 화풍을 거울 삼아 굴절 없이 역사의 흔적과 현실을 반영하자.”

그러나 나 또한 나그네의 소회와 감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때론 개인의 주관과 인류의 보편은 서로 망각과 감회의 강물을 바라보고 있음. 하여 여행자는 지금 스산한 풍경에 젖어있다. 내 삶의 모순을 망각하고 인도라는 강물속의 조약돌을 보며 그곳에 손을 담그고 있다. 여기에서 ‘현상’이 곧 ‘본질’이라는 ‘직관’이 성립하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이 단지 합리화나 동정의 변은 아닌 것이다. 서글픈모름지기 웃음을 찾아야므로.

열차에서 내려 짐을 찾을 때까지 대합실에서 서성이는데 각색 문양과 빛깔로 빛은 여인들의 의상이 자꾸만 시선을 끈다. 어색한 눈맞춤에 가벼운 인사가 마침내 “나마스떼”로 통한다. 그 중 아기를 강보에 싸안은 아낙은 내 눈길을 이해했는지 다가서자 잠자는 아기를 보여주며 웃음 짓는다. 눈썹 사이에 검은 점이 뚜렷한 아기의 무구한 잠. 인도의 미래를 꿈꾸는 새 생명, 희망의 숨결! 거리의 물결은 다시 흐르고 만다라의 세계가 이어진다.

lsh1957@lycos.co.kr



◇강보의 빛 (41×3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더어행사

국내최초 침대 98% 할인  
 의료기기 허가할부  
 기념 20%세액

##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형스700

₩4,800,000  
→ ₩3,840,000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형스600

₩2,700,000  
→ ₩2,16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침구류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 효과의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상반의 일 가방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애하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제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외재)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02) 581-6011-3  
공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272